

## 사랑하는 교우님께

세상을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 
기쁨이 넘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

우리에게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,  
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.

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,  
누구에게나 아쉬움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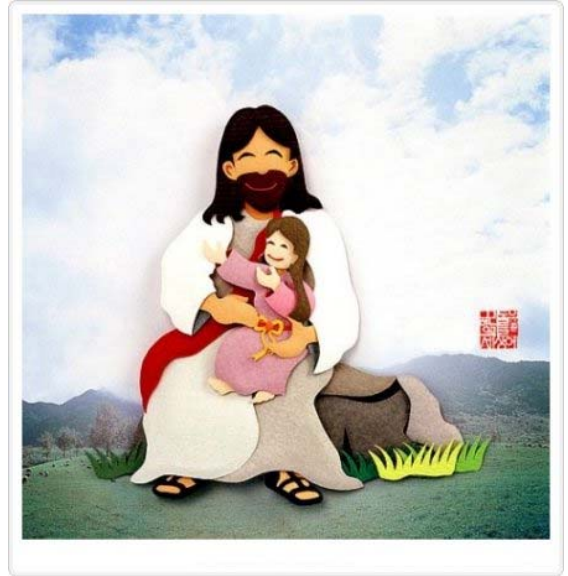
상처를 받기도 하고,  
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고,  
안타깝고, 후회스런 순간이 있습니다.

바쁘게 돌아가는 하루를 살다보면,  
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조차 깜빡하곤 합니다.

신약성서의 요한복음서에는  
"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"(13.34, 15.12, 13.34, 15.12)  
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려 네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.

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 
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랑이 넘치는  
신앙공동체를 만드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.

이번 구역별 성탄탄공성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,  
서로 아끼고, 칭찬해주고, 격려해주는  
신바람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 
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께 청하며,  
교우님의 가족을 주님의 잔치에 초대합니다.



항상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 
R. C.